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축전 펼쳐진다

남원·고령·김해·함안·고성·합천·창녕 등 영·호남 7개 지자체 분포 고분군 일원서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 고분군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하는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축전'이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전은 남원시를 비롯해 고령군, 김해시·함안군·고성군·합천군·창녕군 등 영·호남 7개 지자체에 걸쳐 분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일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연속유산: 7개군,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리리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국가유산청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야 고분군을 주제로 축전이 열리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축전은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국민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람객 친화형·참여

형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개막식은 8월 28일 19시에 함안박물관에서 '함께 가는 길, 동행'이라는 주제로 2,000년 전부터 번성했던 가야의 이미지와 가야의 공동체 이미지를 자연 요소와 결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이다.

축전 기간에는 △별 보러 가야로 △나도 해보자 유물 발굴 △초대, 가야로 온 세계유산 △우리는 세계유산 해설사 △국제학술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각 고분군 현장에서 운영된다.

축전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기후변화가 가야고분군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한 열띤 심포지엄이 남원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학계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축전의 세부 프로그램 일정, 예약 정보는 세계유산 축전 누리집(<https://worldheritage-gay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축전' 포스터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 군민극단 '완주블루스' 주민 배우 모집

17일까지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

완주군민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군민극단 '완주블루스'가 주민 배우를 모집한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2026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극회와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은 주민참여예술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주 군민극단 '완주블루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작극회가 주관하고 완주문화관광재단,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가 협력해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장생 프로젝트다.

'완주블루스'는 완주문화관광재단이 발간한 완주 중년 회갑집 '인생2막 학교-인생은 아름다워'에 담긴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읍내버스 단막 낭독연극을 제작해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오는 20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10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신체 언어와 발성 기초를 비롯해 캐릭터 분석, 무대 동선 훈련, 리허설 등 연극 공연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우게 된다.

특히 65년 전통의 전북 대표 극단인 창작극회 소속 전문 연출가와 배우 3명이 직접 교육에 참여해 참가자들을 밀착 지도할 예정이다.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은 오는 10월 2일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성과발표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



완주군민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군민극단 '완주블루스'가 주민 배우를 모집한다.

연극에 관심이 있고 완주를 사랑하는 성인이 라면 연기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2명 내외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자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2026년도 창작극회 기획·정기공연 전석 무료 관람과 향후 완주 군민극단 활동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창작극회(063-282-1810) 또는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063-291-7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진흙 속의 군자-백제왕궁에 핀 연꽃’

익산 백제왕궁박물관, 11월 15일까지 연꽃 관련 귀중 유물 27점 전시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를 관통하며 사랑받아 온 연꽃을 매개로 선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연다.

백제왕궁박물관은 14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진흙 속의 군자-백제왕궁에 핀 연꽃'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연꽃을 통해 당대인들이 지향했던 '군자'의 이상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에서 엄선한 연꽃 관련 귀중 유물 27점을 선보인다. 특히 유물에 새겨진 연꽃을 단순한 미적 장식이 아닌 '진흙 속의 군자'라는 철학적 상징으로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

전시실에서는 백제 왕궁의 위엄을 보여주는 수막새와 전돌부터 고려의 우아한 청자, 조선 선비의 숨결이 깃든 백자와 분청사기까지 다채로운 유물이 공개된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은 본연의 아름다움과 묵직한 질감을 자랑한다.

북송의 철학자 주돈이가 '애련설'에서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탁함에 물들지 않는다"며 연꽃을 칭송한 이래, 연꽃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은 본성을 지키는 지식인의 표상이 됐다. 전시에서는 선인들이 생활용품에 연꽃을 즐겨 새긴 까닭 역시 고결한 얼을 닮고자 했던 다짐이었음을 옛 명문장 두 편과 함께 탄탄하게 풀어낸다.

/익산=이재춘 기자

뮤지컬 '레미제라블 코제트 소녀이야기' 김제 온다

아름답고 귀여운 소녀 코제트의 이야기로 누구나 한번쯤 읽어봤을 빅토르 위고의 명작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는 가족 뮤지컬 '레미제라블 코제트 소녀이야기'로 오는 28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어린 자녀를 둔 가족까지 관람하기 쉬운 공연으로 제작되어 많은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고, 원작 소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어린이들이 집에 돌아가 다

시한번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했다.

또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꿈과 희망을 품어주고 싶은 재미있는 명작 뮤지컬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판매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시, 청년 퓨전국악밴드 '날라리와 쟁이' 25일 무료 공연

전주시는 전통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 고 있는 청년 퓨전국악밴드 '날라리와 쟁이'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덕진예술회관에서 '덧길이와 반길이' 공연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과 전주시가 주관하는 '2026 전국 풍류지랑'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 풍류지랑'은 지역 소재 전통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전국 각지에서 엄선된 10개의 우수작품 중 하나인 '덧길이와 반길이'는 전통 국악 악보에서 유래한 리듬 개념으로, 길고 짧은 흐름의 대비를 의미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국악, 정가, 재즈, 색소폰, 그리고 두 대의 드럼이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 및 전체관람가로 진행되며, 입장권은 나무꾼처럼 누리집(www.mar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